

# 검찰, MB 14일 오전 9시30분 출석 통보

### 다스 실소유주 문제·국정원 특활비 수수·불법자금 수수 등 조사... "예우 갖춰 철저·투명 수사"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30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진행된 수사 상황을 감안할 때 실질적 진실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문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의혹, 각종 민간 불

법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해왔다.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몸통'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이다.

검찰은 다스 문제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내부 결론을 마친 상태이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지시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러 민간 불법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

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까지 1주일이나 남은 만큼 필요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26일 소환됐지만 3시간만에 귀가한 이상득 전 의원을 7일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인 신분 등을 감안해 이 전 대통령을 한차례 소환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이 출

석하면 관련 의혹을 조사해온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병수)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를 모두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필요한 예의는 충분히 지킬 것"이라고 말한 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

### 한승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취임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43대 위원장으로 한승(韓勝·사진) 전주지방법정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한승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선거는 우리 가족과 이웃,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일꾼을 선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소중한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이 지역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이번 지방선거가 주민이 주인인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으로 정당당파를 경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선거를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행위, 흑색선전행위 등 중대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엄격히 대응해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文대통령 "대북 특사단 파견 한반도 평화·번영 여정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과 관련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공평동의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4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나는 어제 북한에 특사단을 보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청년장교들의 불타는 애국심이 있다. 또한 북핵보다 강한 민주주의가 있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자랑스런 국민이 있다"며 "은땀으로 조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청년장교들의 꿈이 평화를 향한 국민들의 꿈과 하나가 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원대한 목표에 도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며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안보다.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나와 군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뉴스



6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제74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독립운동가 후손인 이항중 독립군 대표가 졸업생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 박희승 내정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박희승(55·사진)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장을 6일 내정했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당규 제13호 제17조에 의거해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박 위원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교과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건국대 행정대학원 세무행정학과 석사과정과 한양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지적재산권)을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사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재경남원향우회 교문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윤리심사위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한간담협회 법률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김진성 기자

# '안희정 성폭행 논란' ... 정치권 후폭풍 일파만파

### 충남지사·국회의원 충남 천안갑·대전시장 후보들 유탄 맞아... 야당, 반전 도모

유력 대권 주자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 성폭행 논란으로 나뉘면서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야당은 안 전 지사 사건에 대해 특검을 포함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우세가 잠정적이지만 안 전 지사 사건을 계기로 이탈했던 보수층의 재집결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우선 안 전 지사의 영향력이 상당한 충청권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는 약세가 현실화되고 있다.

당장 민주당 충남권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의 선거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안

전 지사가 충남지사 3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양승조 민주당 의원, 북기왕 전 아산시장이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직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박 전 대변인이 '안 전 지사 친구'를 자처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렸지만 안 전 지사 성폭행 논란의 유탄을 맞고 선거운동을 전격 중단했다.

박 전 시장도 안 전 지사의 '3농 혁신(농어민·농어촌·농어업)' 정책 계승 발전을 공약하는 등 '안희정 마케팅'에 동참한 바 있어 타격이 불가피하다. 안 전 지사에 게 거리를 유지했던 양 의원의 반사이익이 겹쳐진다.

국회의원 충남 천안갑 재선거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안 전 지사 최측근 허승욱 전 충남도 정부부지사는 사건 이후 출마를 원점에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장 선거도 유탄을 맞았다. 안희정계 허태정 전 유성구청장은 오는 7일 정책공약 발표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낮은 정당 지지율로 고전하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안 전 지사 때리기를 통해 반전을 도모하고 있다.

안 전 지사 사건으로 도덕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국정농단 사태 이후 이탈한 중도보수층의 재합류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충청권은 물론 전국적인

약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만일 지지층 이탈이 현실화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을 회복하고 영남권에 진출해 광역단체장 9일과(9)를 확보한다는 민주당의 목표가 무산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에 민주당은 안 전 지사 성폭행 논란이 보도된 당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제명과 출당을 결정하는 등 신속한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6일 오전 전대폭력대책 TF를 소집해 안 전 지사의 사법처리를 먼저 언급하는 등 선국기에도 나섰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물론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차기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 전 지사 측근 그룹은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안 전 지사에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또는 당 대표직 도전을 권유해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물거품이 됐다는 분석이다. /뉴스

### 국방부, 2018년 6·25전사자 유해발굴 시작

국방부는 오는 12일부터 11월23일까지 8개월 간 2018년 6·25전사자 유해발굴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이같이 밝힌 뒤 "올해 유해발굴사업은 주요 격전지를 중심으로 전국 82개 지역에서 33개 사·여단 장병 10만여 명이 참가해 임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올해 초 정부부처 관계기관 협의회와 전군(全軍) 주요 유해발굴 관계관을 대상으로 유해발굴 추진 협조회의를 개최해 유해발굴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전문 발굴병들의 집체교육, 신원 확인을 위한 합동 세미나 등 유해발굴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민간의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유해발굴사업 추진을 위해 3월 참원, 5월 미국 서부지역, 7월 전주, 9월 강릉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전용사의 증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전국 24개 지역에 대한 유해소재 조사·탐사 활동을 실시하고, 국제협력 강화와 교류증진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중국군 유해송환도 함께 추진한다. /뉴스

## 항상 군민과 함께하겠습니다.

### 열린의정! 으뜸의회!

# 임실군의의회



옥정호 순환도로 드라이브길



옥정호 붕어섬(외앗남)



천담구담마을



관촌 사선대

### 제277회 임실군의의회 임시회

◇ 회 기 : 2018. 3. 8.(목) ~ 3. 13.(화) [6일간]

◇ 주요안건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



## 임실군의의회